기독교와 대중문화

김 경 완*

차 례

Ⅰ. 서론
Ⅱ. 인문학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세계관
Ⅲ. 대중문화의 실상
Ⅳ. 기독교와 대중문화
1.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관계
2. 기독교와 의식주문화
3. 기독교와 출판문화
4. 기독교와 음악문화
5. 기독교와 영상문화
6. 기독교와 미술문화
7. 기독교와 언론문화
8. 기독교와 홍보문화
9. 기독교와 인터넷문화
10. 기독교와 교통문화
11. 기독교와 공동체문화
12. 기독교와 놀이문화
13. 기독교와 여가문화
Ⅴ. 기독교 대중문화의 가능성
Ⅵ. 기독교 대중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Ⅶ. 결론

Ⅰ. 서론

인문학은 사람됨의 가치를 존중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학문의 성격을 지닌다. 기독교는 창조-타락-구원의 세계관[1]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성경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독교[2]는 인문학적 사유의

* 숭실대

1) 알버트 월터스,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학문연구회 IVP, 1993. 참조.

2) 기독교에 대해 삼위일체 신의 계시, 인간정신적 삶의 깊이, 인간사회적 삶의 총체 영역에 관계하는 기독교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

깊이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영역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여러 사람이 문화를 영위해 나가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것이 대중문화[3]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중문화의 터전[4]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늘 함께 하면서도 의식하기 어려운 공기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며 삶의 정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적 차원에서 특히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대중문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문학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세계관을 정리하고, 대중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논의한 뒤, 기독교와 의식주, 독서, 음악, 영상, 미술, 언론, 홍보, 인터넷, 교통, 공동체, 놀이, 여가라는 대중문화의 실제를 탐구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제반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며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기독교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독교 대중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문학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세계관

인문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치있는 삶의 방법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때, 기독교는 우주와 지구와 사람의 기원을 확실히 설명하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인문학의 정점에 있다. 성경

와 문화』, 1987. 16-23쪽.)

3) 영국의 해밀턴은 대중문화의 속성으로 통속적인 것, 일시적인 것, 쉽게 잊혀지는 소비적인 것, 저렴한 것, 대량생산되는 것, 젊음에 관한 것, 재치가 있는 것, 성적인 것, 참신한 것, 매혹적인 것, 대형사업적인 것 등을 들고 있다.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2001. 71쪽 참조.)

4) 대중문화가 그 수준과 내용을 규정짓는데는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니므로 어느 한가지로 현대 대중문화의 성격을 결정짓지 어려운 면이 있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2. 19-21쪽.)

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음을 선포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려준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인간은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며,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갖게 되고, 문화를 창조하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에 사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인문학의 원형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며 분명한 방향을 갖고 학문의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이유 중 하나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히 기뻐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되는 계명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학문의 기저에 두게 될 때 인문학은 인간과 인문학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본질적인 목표 안에서 더욱 깊이있고 풍성한 연구의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기독교세계관[5]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자유 의지를 오용하여 타락에 이르렀으며(원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구원(속죄와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관점에서 우주와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기독교세계관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개개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요구된다.

---

5)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독교세계관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이승구,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2003. 16-17.)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으로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죄(하나님과의 단절)를 사함받고(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은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거듭남도 체험하게 된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치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된다.[6] 이것은 곧 인간의 존재와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진리이기도하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인간의 진리가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세계관의 목적이며 가치다.

Ⅲ. 대중문화의 실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상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 이후, 죄의 어두운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주신 문화 명령이다.

이 문화 명령에 따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오시자 각 생물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 일컫게 된다. 인간의 타락 후에도 이 문화 명령은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유효하게 작동해오고 있다. 다만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더불어 악하고 추한 열매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6) 아더 홈즈, 서원모 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92쪽.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왔다. 유형의 문화와 무형의 문화를 생산해왔다. 가치의 잣대에 따라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로 분류되기도 했다. 대중문화란 많은 사람이 일상 속에서 공유하는 문화이며, 상업성을 동반하는 문화이고, 변화의 흐름이 매우 빠른 면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대중문화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계절마다 의상 스타일이 바뀌며 다양한 가격대의 옷들이 세대에 맞게 진열된다. 입맛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대형 음식점에서 만들어지고, 소문을 따라 사람들이 이동해 가며 음식맛을 보고 특화된 음식이 만들어진다. 불과 몇년 사이에 달동네가 사라지고 대형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선다. 대형 서점에는 매주 다채로운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소개된다. 대중 가수들이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록음악이 충격을 가하기도 한다.

국내외 개봉 영화들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시선을 자극한다. 새로운 경향의 미술 전시회가 여러 갤러리에서 열리게 된다.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언론이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광고와 홍보매체를 통해 쏟아져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내외의 긍정적 부정적인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다. 가정마다 승용차가 생기면서 번잡한 교통문화가 형성된다.

여러 가지 동호회와 단체를 통해 공동체문화가 형성된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문화들이 현대인을 불러모은다.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채로운 여가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중문화는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형성되어왔으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이 대중문화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갈 것이다.

Ⅳ. 기독교와 대중문화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기독교세계관으로 분석하여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다.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7]시켜가며,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1.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관계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비나 눈이나 공기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선물인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중문화에 죄성이 함께 하며 부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부정적인 면을 선별하여 긍정적인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유익하며 풍성하게 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도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교회문화가 있고, 교회 밖에는 대중문화가 있다. 대중문화의 광장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즉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대중문화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서 많은 유형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대중문화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기독교와 의식주문화

의식주문화는 의복문화와 음식문화와 주거문화로 세분된다. 우리의 의복문화는 한복문화와 양복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옷이다. 한복은 쭉 뻗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전통의 상이다. 여성은 짧은 저고리와 넉넉한 치마로 우아한 멋을 풍겼으며, 남성은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조끼와 마고자로 멋을 냈다. 최근 국내에는 한복의 장점에 실용성을 가미한 개량 한복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8]

---

7)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위로부터의, 하늘로부터의, 영적인 시작이다(리처드 니버,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96. 200-201쪽 참조).

8) http:/home.cein.or.kr/~heart01/main.htm

양복은 서양풍의 남여 의복을 총칭한다. 캐주얼 스타일의 보편화와 의상의 컬러화, 레저복의 전파 등이 이루어져 왔고, 시기마다 다양한 모양과 색상이 선보인다. 의복은 사람의 개성을 표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복식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활상을 대변해주는 상징성도 지닌다. 의복문화가 지나치게 유명 배우나 탈렌트 또는 가수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깨끗하고 편하고 용모를 단정히 드러내 줄 수 있는 의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나친 고가의 옷은 사치를 조장하며 진정한 자기를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대중들의 다채롭게 변화해가는 의복문화를 주시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음식문화는 건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양가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즐긴다. 운동이 부족하여 비만에 빠지기도 한다. 다이어트식품도 인기다. 청소년층에는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가 인기다. 술과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기호품이지만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선심을 많이 쓰며 건강에 위배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에 생존하는 기간 동안 맡겨주신 신체와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 잘 구별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알맞은 양을 섭취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와 출근시간을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건강이나 장기적인 일의 열매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육신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다. 음주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흡연이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모두에게 해롭다. 음주의 자리에 건강음료와 과일과 한과가, 흡연의 자리에 기도와 운동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거문화는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족단위 삶의 공간이다. 수면과 쉼과 식사 등의 개인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처가 주택이다. 요즘에는 재택 근무의 활성화로 인해 개인이 일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등의 부

작용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 측면이다. 호화 주택에 거주하며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이 모든 국민에게 주거문화 본연의 안락한 거처로서 주어질 수 있도록 쉽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의식주문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아를 표현하고 생존을 유지하며 참된 쉼을 통해 재충전하는 터전이다. 빗나간 사행심과 상업성과 투기로 의식주문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식주문화를 만들어가며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영위해가야 할 것이다.

3. 기독교와 출판문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등에는 계속하여 번역서와 신간들이 진열된다.[9]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서와 문학서와 논픽션물이 대중들에게 선보여진다. 화려한 표지에 큰글씨로 쓰여진 얇은 책들이 많이 팔리는 편이다. 보다 편하게 책을 대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구미를 잘 맞추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며, 미래의 보화다. 출판사들은 보다 가치있는 책들을 번역해내고 좋은 필자들의 원고를 출판하여 양질의 책들을 독자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독자들은 가치있으며 좋은 책을 선별하여 구입하고 마음의 양식인 독서에 부지런해야 한다. 특히 불법 복제는 근절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출판문화가 활성화되어야 인문학이 살고 사회가 윤택해진다. 기독인들은 새롭게 출판되는 책들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읽어가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유익한 서평을 내놓는데 힘써야 한다. 특히 기독인들이 기독교세계관을 저변에 담고 많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서적들을 저술하여 세상에 내놓는 것도 출판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

9) 2004년 10월 현재에는 이순신의 단순성과 순결함과 영웅성을 다룬 김훈의 장편소설 『칼의 노래 1, 2부』(생각의 나무)와 영혼의 연금술을 설파하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문학동네)가 베스트셀러로 보급되고 있다. 『칼의 노래』는 모 공영방송에서 '불멸의 이순신' 이란 제목의 연속 드라마로 방송되고 있다.

4. 기독교와 음악문화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달되어온 곡조있는 예술이다. 음악을 통해 영혼이 힘을 얻고 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기도 한다. 음악을 가사와 곡조로 나누어 볼 때, 사람에게 유익한 가사가 있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해롭게 하는 가사가 있다. 대중 가요의 상당수가 이별, 자책, 원망 등의 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정적인 언어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영혼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사랑, 격려, 용기,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주제를 담은 가사로 불리워지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빼어난 곡조와 함께 영혼과 마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음악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 기독인들의 중요한 과제이기도하다.

5. 기독교와 영상문화

영상문화로는 텔레비전과 영화가 대표적이다. 영상문화는 시청각적인 다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기에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가 이야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텔레비전 연속극의 이야기들은 삼각관계, 불륜 등의 왜곡된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짙다. 개봉되는 영화들도 흥행을 의식하여 폭력성, 선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텔레비전 연속극을 통해 이웃 사랑과 올바른 인간관을 배우고, 영화[10]를 통해 우주와 역사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익히며 진정한 사랑과 건전한 오락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11] 탁월한 예술성과 하나님의 형상성에서 나오는 가치들을 주제로 함축한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 대본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독교대학들과 교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

10) 영화는 기독교를 기초로한 사회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변혁의 모델로 대표되기도 한다.(윌리엄 로마노프스키, 신국원 역, 『대중문화전쟁』,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65쪽.)

11) 최근 개봉되었던 '슈렉2'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남여노소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뉴스앤조이, 2004. 7. 22. 28면)

6. 기독교와 미술문화

미술은 아름다움을 조형적(造形的)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공간적 시각적 미를 나타내는 회화, 조각, 공예, 서예, 건축 등을 들 수 있다. 크고 작은 미술관에서 여러 부류의 국내외 미술품들을 전시하여 사람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서를 안정되게 하고 창의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종 선정적인 소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상업적 접근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름다운 예술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하여 보여주는 미술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미술가들을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기독교와 언론문화

언론은 말과 글로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의 기자들이 주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들과 기고자들이 동참하게 된다. 또한 대내외적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어우러져 언론문화가 형성된다.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현된 말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언론은 근거가 명확하고 책임있는 발언을 할 때 대중들의 신뢰를 받게 된다. 오도된 언론은 대중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잘못된 정보는 특정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한번 세상에 나온 언론은 되담을 수 없기에 심사숙고하여 표현해야 한다. 기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언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의 공동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날마다 공표되는 언론을 주시하며 불공정한 표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고 바람직한 내용은 칭찬하여 격려해주어야 한다. 공정한 언론문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일은 기독교대학과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8. 기독교와 홍보문화

현대 사회에서 홍보는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가치있고 의미있는 것이라도 잘 알려지지 않으면 빛을 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집밖에 나서면 홍보의 물결에 묻혀지낸다. 집안에서도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홍보는 계속된다. 기관홍보, 사업장 홍보, 개인홍보, 행사홍보, 상품홍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경쟁적으로 소개하다보면 일정한 선을 넘는 과대 표현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양심있는 소양이 필요하다.

먼저 홍보를 의뢰하는 당사자가 진실되고 정확한 내용만을 원고에 담아야 한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을 기뻐하신다. 특히 홍보의 시간과 장소를 적절히 선택하고 도심의 공간 미학을 해치는 무분별한 홍보방법은 삼가야 한다. 기독교대학과 교회는 사실에 입각해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효과적인 홍보의 내용을 기획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9. 기독교와 인터넷문화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하나의 망을 구축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문화활동, 학습, 쇼핑, 사업, 오락 등의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의 순기능은 실시간으로 유익한 정보들을 모두가 공유하며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에 노출되기 쉽고 여기에 빠져들면 인격과 영혼에 상처를 입으며 정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독인들은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잘 다루어 양질의 정보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독교문화와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 기독교와 교통문화

서울 강남지역의 자가용 보유율은 1.1대로 도쿄나 홍콩보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지역내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할 모노레일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07년말경부터 운행될 예정이다.[12] 이렇듯 우리의 교통문화는 지역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혼잡을 빚고 있다. 교통사고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이 나와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기 일쑤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잘못된 의식의 반영이다. 질서를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해야 할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교통경찰과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문제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내 기계 다루기와 대기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료사용 및 운행방식이 체득되어야 한다. 출퇴근과 업무를 위한 이동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며, 주된 업무지에서 도보권에 자택을 두어 걸어서 출퇴근하게 되면 굳이 자가용을 소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생명이 사상자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11. 기독교와 공동체문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주부들끼리 공동체가 형성되어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게 된다. 요즘에는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어 각기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 가운데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과 의견 조절이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할 수 있는 성숙성과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입장을 주장할 때는 언제나 전체의 이익이라는 큰 숲을 보고 분수에 맞는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공동체가 대화와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신다. 기독교 교육기관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국가와 세계를 유익하게

12) 서울신문 2004. 7. 9.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가야 한다.

12. 기독교와 놀이문화

놀이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충전받는다. 놀이는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건전하게 잘 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놀이문화에는 전통놀이가 있고 현대적인 놀이들이 있다. 전통놀이에는 윷놀이, 그네뛰기, 줄다리기, 연날리기, 씨름, 활쏘기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인 놀이를 제공하는 곳에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드림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어린이대공원 등이 있다. 화투와 같은 도박성 놀이는 놀이 본연의 생산적인 즐거움보다는 인생을 도박의 늪에 빠뜨려 마음과 경제적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유익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즐거운 놀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일반 대중들도 함께 즐기면서 궁극적으로 놀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3. 기독교와 여가문화

여가란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짬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며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간 열심히 일하고 2일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질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인 자아개발의 시간을 갖거나 가족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경우,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나누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다. 분명한

13)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하며, 놀고, 가르치며, 배우고, 살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디즈니가 그린 난장이들처럼 우리는 휘파람을 불면서 일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오고야 말 '평화(shalom)'의 나라를 선취(先取, anticipate)하여 살고,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아더 홈즈, 이승구 역, 『기독교세계관』, 도서출판 엠마오, 1991, 338쪽.)

계획을 갖지 못하면 집에서 무료히 보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여가는 의미있게 잘 쉬며 전인적 삶의 원동력을 얻는 것이다. 기독인들은 주일을 잘 지키며 영혼의 안식을 얻고 봉사하기 위해 토요일에 개인과 가정의 일들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참된 여가는 영혼의 큰 공간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정한 쉼과 창조적 원동력을 제공받게 된다. 기독인들은 여가의 기회를 통해 창조주를 만나지 못한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고 전도하는 데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V. 기독교 대중문화의 가능성

기독교는 대중문화에 대해 열린 사고[14]를 가질 수 있다. 기독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대중문화이므로 기독교와 대중문화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기독인들은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고찰하여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긍정적이고 가치있게 바꾸어나가는 문화변혁적 사명을 띠고 있다. 더 나아가 기독인들이 대중문화를 주도해나가는 기독교 대중문화[15]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그 민족의 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있는 기독교 문화를 창조한다.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가 밖으로부터 근대의 문화와 다른 문화만 수입하며 모방하지 말고 안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찾아서 창조하고 승화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보유해야 한다.[16]

---

14) 기독교 대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독인의 자기 갱신과 인격적 문화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박종균, 『소비사회 대중문화 기독교』, 한들, 1997. 257-260쪽 참조.)

15) 기독교 대중문화는 기독교문화 또는 교회문화와 다른 측면을 지니는데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중문화는 기독인들에 의해 기획되고 형성된 문화를 일반 대중들도 향유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기독교문화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누는 가치관이며, 일하는 스타일이고, 사물을 보는 시각이다. 동시에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고, 언어이며, 상징이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갖는 개성과 풍토다(이의용, 『교회 문화 혁명』, 기독신문사, 1999. 33쪽 참조).

16) 성갑식, 『기독교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97. 16쪽.

기독인들이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 인류에게 유익한 대중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의 개성도 잘 살릴 수 있고 몸에도 이로운 의복을 디자인하여 생산하고 저렴한 값에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감동적이고 유익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를 키우고 발굴하여 기독교세계관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을 아름답게 인쇄하여 적정한 가격에 보급하는 출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기독교 음악문화, 영상문화, 언론문화, 놀이문화 등을 세상에 내놓고 정당히 평가받으며, 여기서 산출되는 수익금을 인재양성과 기독교 대중문화 형성에 재투자하고 기반을 조성해간다면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발전적이며 유익한 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VI. 기독교 대중문화의 인문학적 가치

기독교와 대중문화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기독교 대중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그리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에 대중문화의 통속성과 상업성에 휘말려 기독교 본연의 빛을 상실하게 된다면 덕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다.

기독인들이 대중문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한 대중문화를 선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책임이 기독인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17]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중시한다. 인문학도 인간의 존재의미와 가치를 연구하여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는 인문학적 토대가 된다. 이 점에서 기독인

17) 문화는 인간을 주체로 형성되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문화를 소유하는 주체는 인격과 가치관의 소유자인 인간이다. 문화는 문화생산자의 인격을 거쳐서 탄생하게 되므로 어떤 문화라도 가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는 인간의 상징적 의미체계로서 인간은 문화를 통하여 호흡한다. 문화 안에는 상상력이라 불리우는 인간의 창조성이 활동하기에 문화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차원에 관계한다(추태화, 『21세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망』,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246쪽-247쪽 참조.)

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기독교 대중문화는 인문학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Ⅶ. 결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며, 인간의 타락을 인정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대중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깊이 연구하여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가야 할 문화적 책임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형성해가야 할 기독교 대중문화는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안목과 협력이 필요하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기독교의 창조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핵심적 표현에서 보여주는 점은 기독교 대중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대변한다. 기독교는 대중문화를 통해 이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에로의 입성을 통해 대중문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2.
김훈, 『칼의 노래 1』, 생각의 나무, 2001.
김훈, 『칼의 노래 2』, 생각의 나무, 2001.
리처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58.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대한기독교서회, 2001.
아더 홈즈,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알버트 월터스, 『창조·타락·구속』, IVP, 1992.
윌리엄 D. 로마노프스키, 『대중문화전쟁』,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이승구,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2003.
추태화, 『21세기 기독교 인문학의 전망』,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와 문화』, 풍만, 1987.

【Abstract】

Christianity and Popular Culture

Kim, Kyung-Wan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popular culture from the view point of human studies.

First, it reviews the role of churches and their Christian ideas which have been shaped in human studies and outlines modern popular culture based on it.

Then, it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popular culture by examining bare necessities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cultural activities such as reading, arts and music, movies, media, the Internet, transportation, communities, and leisure activities.

The paper also investigat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popular culture, but tries to find the way not only to further develop positive aspects but also to improve negative aspects.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the paper searches for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Christian popular culture and evaluating its humanistic values.

Christians believe in God, the creator, and admit the corruption of human beings. They also believe in the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e second advent of Jesus Christ, the apocalyptic judgment of God, and the heaven and the hell. Popular culture performs within the creation and providence of God, but it incidentally involves the incompleteness caused by the corruption of human beings.

These days, Christian churches are responsible for studying popular culture after closely reviewing i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nd for guiding it to the right way.

Christian popular culture should not be passively imitating the existing popular culture but be equipped with cooperation and insights for its further developments from the overall point of view.

Christianity assumes that it targets "the man who resembles the shape of God" as its essential value so does human studies. In this respect, Christianity speaks for human studies in pursuing the common value. Christianity tells us about what values we should have in living our lives in this world through popular culture. Therefore, we should obey the culture command of God by faithfully following his way until we enter his kingdom where popular culture comes to its perfection.

Key Words : Christianity, popular culture, positive aspects, negative aspects, hamanistic values, culture command of God